

제주 어촌뉴딜300사업 ‘그 나물에 그 밥’

제주·서귀포시, 2020년도 사업 대상 총 11곳 선정
도, 지방재정계획심의서 ‘특색없다’ 재검토 의견
수정없이 제출 가능성 높아... 국비 확보 ‘빨간불’

오는 9월 정부 제출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제주 어촌뉴딜 300사업 예비계획서가 제주도 심의에서 특색없는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이 확인됐다.

계다가 사업 담당 부서에서는 지역별 차별화 전략 등 수정·보완이 필요한데도 공모 접수기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중앙 심사를 앞두고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어촌이 보유한 핵심자원을 활용해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하고 어촌지역 사회·문화·경제·환경의 활력을 유도하기 위해 ‘어촌뉴딜300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2020년도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 선정 계획을 발표했으며, 오는 9월 9~10일 양일간 계획을 접수받을 예정이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지역특성에 따른 사업규모에 따라 1곳당 평균 100억원(국비 70%)이 지원된다.

앞서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수요조사와 평가 등을 통해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예비계획서를 마련했다. 대상지는 고내·목리·북촌·세화·용수·

우도 등 제주시 6곳과 태흥2리항·신산항·신천항·온평항·하호항 등 서귀포시 5곳 등 총 11곳이다.

양 행정시는 예비계획서 제출 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면 가점 1점을 받을 수 있다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난 20일 열린 제주도 지

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예비계획서에 대한 투자심의를 받았다.

그 결과 ‘사업별 특색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라’는 등의 부대의견과 함께 모두 재검토 의견을 받았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사업내용이 비슷해 지역별 특색을 담은 사업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행정시 사업부서에서는 이 계획서를 수정·보완 없이 제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우려되고 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에서 통과

되지 못한 미흡한 계획서를 정부 공모에 제출해야 할 판인 셈이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 무력화와 국비 확보를 위한 자충수 등의 지지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 행정시 관계자는 “시간적으로 수정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지방재정계획심의 완료 증빙자료 제출 마감은 오는 11월 18일까지다. 9월 말에서 10월 초쯤 예정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다시 제출해 검토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오곡백과가 영그는 계절 처서가 지나며 무더위도 한풀 꺾였다. 낮 최고기온이 30℃를 밑도는 전형적인 초가을날씨도 시작됐다. 24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키위농장에 주렁주렁 매달린 골드키위들이 탐스럽게 영글어 가며 가을이 성큼 다가섰음을 실감케 한다. 이상국수습기자

한라산국립공원, 9월부터 입·하산시간 조정

코스별로 30분~1시간 단축

추절기인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라산을 찾는 탐방객의 안전과 탐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입산 및 하산 시간이 조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이 기간 코스별 탐방 시간을 최저 30분에서 최장 1시간 단축 운영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에따라 코스별 입산 시간은 어리목코스(탐방로 입구)·영실코스(탐방로 입구)의 경우 오후 3시에서 오후 2시로, 윗세오름대피소는 오후 2시에서 오후 1시30분, 성판악코스(진달래밭 대피소)는 오후 1시에서 오후 12시30분, 관음사코스(삼각봉

대피소)는 오후 1시에서 오후 12시30분, 돈내코코스(안내소)는 오전 11시에서 오전 10시30분, 여승생악코스(탐방로 입구)는 오후 6시에서 오후 5시로 각각 조정된다.

이와함께 한라산국립공원은 한라산국립공원 고지대가 불규칙한 날씨 변동에 따른 기온차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만큼 식수·여벌 옷·모자 등 충분한 복장을 준비해 산행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입산 가능시간은 전 코스 공통으로 하절기(5~8월)는 오전 5시, 춘추절기(3~4월, 9~10월)는 오전 5시30분, 동절기(1~2월, 11~12월)는 오전 6시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제주 산업생태계 미래 먹거리 찾는다

JTP, 산업생태계 조사·분석
미래유망분야 발굴 등 목표

제주지역 경제의 선순환 요인을 발굴하고 미래유망분야 신규 사업을 제시하는 제주 경제-산업-혁신역량 통합조사·분석이 본격 진행된다.

(재)제주테크노파크(이하 JTP)는 22일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에 ‘2019년 제주 기업특성 및 산업생태계 조사 분석 연구 용역’을 공고했다.

개찰은 9월 2일이며, 금액은 6973만원이다.

과업지시서 안에 따르면 이번 용역은 정부의 지역산업정책 변화에 따른 지역산업 지원체계 개편에 부합하는 제주지역 주도 중장기 지역산업 활성화 전략 수립이 목적이다.

이번 용역은 지역혁신주체별 현황과 육성정책, 기술동향 등 조사·분석을 통해 앞으로 지원 수요를 찾아내고 투자로드맵을 수립,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국가혁신클러스터와 지역 대표산업별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산

업별 지원프로그램 세부기획을 마련하는 기초통계자료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분석 범위는 ▷지역산업경제DB 연동 조사·분석 ▷기업특성조사·분석 ▷제주대표산업 생태계조사·분석 ▷제주 지역혁신자원조사·분석 ▷제주 대표산업 기술경쟁력 분석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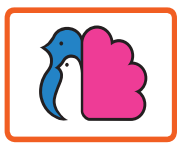
우선 지역산업경제DB 연동 조사·분석 범위는 최소 10년 이상으로,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 18개 도·시·군·구도 함께 조사한다. 산업기반역량(Input)과 산업혁신 역량(Process), 산업역량 결과(Output) 등의 혁신 역량을 한 눈에 살핀다.

제주지역산업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 환경변화 분석을 통해 제주지역 산업 이슈와 시사점을 모색한다.

기업특성조사·분석에서는 국가유복단지과 공기업, 대학, 연구소, 혁신기관 등 전방위 분야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업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과 지역산업 추진 방향이 제시될 예정이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7면 기획 / 제주다운 ‘디자인도시’를 꿈꾸다(하)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엌 사랑으로

제주 올 가을 평년기온 ↑ ... 태풍 1개 영향

제주기상청, 3개월 날씨 전망

올해 제주의 가을은 평년기온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제주지방기상청이 23일 발표한 ‘제주도 가을철 3개월(9~11월) 전망’에 따르면 올 가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으며, 기온 변화가 크겠다. 태풍은 평년 수준인 1개 내외가 영향을 주겠다.

월별로 보면 9월은 초반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끼는 날이 많겠지만, 중순부터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맑은 날이 많겠다. 기온은 평년(23.1~23.9℃)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113.6~243.1mm)과 비슷하겠다.

10월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맑은 날이 많겠지만,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도 있겠다. 기온은 평년(18.4~19.2℃)과 비슷하거나 높겠

고, 강수량은 평년(39.7~82.1mm)과 비슷하거나 많겠다.

11월에도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으나,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겠다. 또한 일시적으로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기온이 크게 떨어질 때도 있겠다. 기온은 평년(13~14℃)보다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40.2~77.9mm)과 비슷하거나 많겠다.

이 기간 태풍은 평년 수준인 9~12개가 발생, 우리나라에는 1개 정도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제7회 제주국제크루즈포럼

2019.8.28(수) - 31(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

도민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컨퍼런스
- 크루즈산업 전시회
- 크루즈산업 B2B 미팅
- 크루즈 승무원 취업설명회 : 현직 크루즈 승무원 초청 강연
- 아시아크루즈리더스네트워크(ACLN) 연차총회 및 다양한 연계행사
- 특별체험프로그램 : 드론축구 체험

*200만원 상당의 크루즈 승선권 10매를 포함한 풍성한 경품이벤트가 현장에서 진행됩니다.
- 크루즈 승선 이용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크루즈 승선 팀) 불포함

문의처 | 제주관광공사 T. 064-740-6048 W. www.asiacruiseforum.com

아시아 크루즈,
평화와 공동번영을 향하여

